

##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밝은 빛을 ...

임성진 총장

오늘 우리는 제 28 회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83 명의 학위과정 이수자를 축하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라틴 형제 자매들이 졸업식에 동참하였습니다. 남미 사역이 이들로 인하여 새로워질 것입니다. 중국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선교의 거대한 사역지이지만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정금같은 성도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졸업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잘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졸업생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한 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수고가 당연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후원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없이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 감화와 지적인 훈련 없이는 성숙한 리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지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그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 차산업혁명의 특징인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인간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며 인간소외의 중대한 착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타문화권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어중심 프로그램을 영어권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이론과 사역역량의 균형을 이룬 멘토링 교육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WASC 에 가입하여 교육적 질을 더욱 높이고 세계의 우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기독교종합대학교로서 만방에 복음의 빛이 비취게 할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월드미션대학교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실한 복음전파자들이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는(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